2016년 12월 20일자 문화일보 “지자체평가 관련 기사”에 대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입장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1면 2단)에 발표된 2016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학회가 해당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가 기사 제목에 “문화일보·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표현하는 등 “지방자치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관련 내용을 정정하여 보도하고, 경위를 분명히 밝힐 것을 문화일보에 요청하였습니다.

○ 경위 설명

1. 2016년 12월 21일 : 하혜수회장이 임승빈교수(평가위원장)와 보도내용 확인.
2. 2016년 12월 21일 : 임승빈교수가 문화일보 노성열기자와 보도내용 확인.
3. 2016년 12월 22일 : 김철회 총무위원장이 문화일보 노성열기자에 이메일로 정정요청.
4. 2016년 12월 23일 : 문화일보 노성열기자 이메일 답신으로 정정요청 거부.
5. 2016년 12월 23일 : 임승빈교수 재차 정정 요구했으나 거부.
   이후 보도에만 관련내용 수정.
6. 2016년 12월 21일~ : 보도에 포함된 여러 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에서 학회쪽으로 확인 문의가 들어옴. 학회에서는 해당 평가에 학회가 참여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안내함.
7. 2017년 01월 04일 : 정정보도 요청 공문발송.

붙임 : 1. “지자체평가 관련기사” 기사 내용 1부.
2. 2016년 12월 20일자 문화일보 “지자체평가 관련 기사” 정정보도 요청 공문 1부. 끝.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12월 20일

프린트 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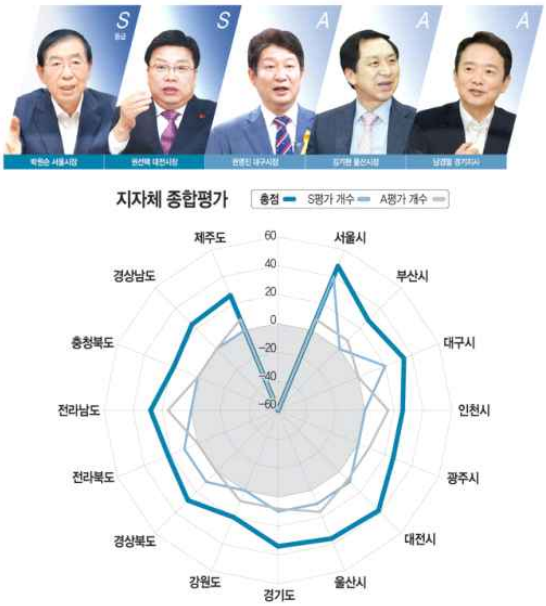
<2016 지자체 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서울·대전', 대구·울산·경기는 'A'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 문화일보·지방자치학회 공동

부산·인천 등 6곳 B등급



서울시, 대전시가 2016년 문화일보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단계인 S등급을 받았다. 이어 A등급에는 대구시, 울산시, 경기도가 선정됐다.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B등급으로 분류됐다.

문화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관련학회 전문가들이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간 국내 최초로 실시한 지자체 평가 결과,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서 이 같은 순서의 등급이 확정됐다. 향후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매일 게재될 전략, 인사 및 조직, 지역경제, 복지, 환경 등 정성(定性) 및 정량(定量)의 5개 부문 평가에서도 지자체별 전체 순위가 공개될 예정이다.

전략 부문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가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에는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가 선정됐다. B등급은 대전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속했다. 인사 및 조직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S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울산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A등급으로 그 뒤를 이었다. B등급에는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경상남도, 제주도가 들어갔다.

한편 정량 평가에서 지역경제 부문의 경우 서울시와 대전시, 전라북도가 최고단계인 S등급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는 이어 A등급을 받았다. 복지 부문에서는 서울시, 제주도, 울산시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이어 광주시,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부문에서는 충청북도와 제주시가 S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다음 A등급에 속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울산시, 전라남도로 평가됐다.

이번 지자체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종의 가처분 재정형편을 대표하는 재정 자주도(自主度) 지표에서 우수한 자치단체일수록 단체장 역량도 우수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부자 지자체'가 일도 잘한다는 부익부, 빈익빈 인식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역량은 이를 뛰어넘어 지자체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한국지방자치학회

수신자 문화일보

(경 유)

제 목 2016년 12월 20일자 문화일보 "지자체평가 관련 기사" 정정보도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12월 20일 문화일보(1면2단)에 발표된 2016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학회가 해당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기사 제목에 "문화일보·지방자치학회 공동"으로 표현하는 등 "지방자치학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사의 잘못된 명의사용으로 해당 평가를 본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라 오인한 지자체들의 문의가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관련 내용을 정정하여 보도하고,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붙 임 : 인터넷 기사 화면 1부. 끝

한 국 지 방 자 치 학 회 장

담 당	사무국장 노명원	총무위원장	김철회 권명희	회 장 하혜수
협조자				

시 행 지자학 - 2 (2017. 1. 4.) 접수 - (2017. . .)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충정로2가,골든타워빌딩 1701호) http:// www.kalgs.or.kr

전화 (02) 567-3372 전송 (02) 3453-2407 E-mail kalgs@kalgs.or.kr / 공개